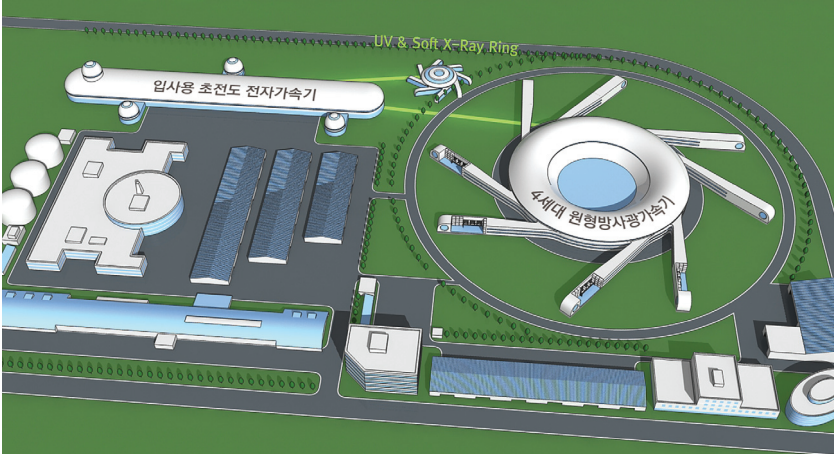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탄력 받나

전국 5곳 치열한 유치전... 興대표 공개 지지 가능성 '청신호'

사업비 1조원 규모... 한전공대·에너지밸리 등과 연계 시너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를 찾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전남 나주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 5곳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의 공개적인 지지는 나주 유치 가능성을 한단계 더 높여주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주재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단독으로 과반수가 넘겨 21대에는 좀 더 원활하게 개혁과제 달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4세대 원형 방

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고 광주에 신산업생태계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초속 30만km/지구 7바퀴 반/태양보다 100억배 이상 밝고 파장이 짧은 초고속 빛)로 가속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빛을 이용해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최첨단 국가 거대연구시설이다.

4GeV(기가전자볼트), 빔라인(40개/산업체 30%), 둘레 800m(지름 255m) 규모로, 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전라남도과 나주시, 한전 등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형 연구시설을 함께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첨단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주력해 왔다.

방사광가속기가 화학, 생물, 전기, 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 응용 분야인 반도체·바이오신약·2차 전지·ESS(에너지저장장치)·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호남권 21개 대학 총장들은 한국전력 본사와 한전공대, 에너지밸리가 조성 중인 전남 나주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도 지난 달 협의회를 갖고 '방사광가속기 호남 구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방사광가속기 입지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 나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선정절차는 지난 3월27일 공모에 착수하고 3월30일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4월 8일 유

치의항서 접수, 29일 유치계획서 접수, 5월6일 발표 평가, 5월7일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지역의 산업자원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기능을 위해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그 핵심 기반이며, 호남권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을 고도화해 국가적 과제인 첨단소재, 부품산업, 기초과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전남은 가속기 연구시설 전무, 첨단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2017년 기준 호남권 R&D사업 비중은 전국의 3% 수준으로 최하이며 전남의 경우는 0.7%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시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나주 유치 지원'을 밝힌 데 대해 이계호 민주당 호남권역선거대책본부장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을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이 민주당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동구, 공공조형물 일제정비 추진

광주 동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공공조형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공공조형물 정기점검으로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동구가 관리하는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형물이다.

대상은 산수오거리 분수대와 남광주테마마스크 산수 바다분수 등 분수대 6개소를 비롯해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혼수의 거리 상징조형물, 예술의 거리 '생명', '풍경', 푸른길공원의 '봄이 오는 소리' 등 상 등 총 33개소에 대해 정비를 시행한다.

서구,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광주 서구는 지난 7일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우수기업 3개소에 표창과 우수기업 현판을 수여했다.

지난해 말 서구는 광주 자치구중 최초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사회적 기업 33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 등 3개 분야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남구, 코로나 19 장기전 대비 생태숲 정비 온 힘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심리 방역 차원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제척산과 금당산 생태숲 정비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금당산과 제척산 일원에 대한 숲 가꾸기 및 등산로 시설물 정비 사업 등이 4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만저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해 금당산 일원에서 45ha 규모의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금당산 등대리인 태현사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성된 편백숲을 활용, 주민들이 이곳에서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 2020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본격 추진

광주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모사업 중 노인 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 민·관·산·학, 경제백신 펀딩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산구 민·관·산·학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광산경제백신회의가, 8일 투계터광산나눔문화재단과 '광산경제백신 펀딩'에 나섰다.

7일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그 첫 행보로 이번 펀딩을 결의하고 곧바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펀딩의 목표는 기업·시민·공직자들의 자발적 성금 10억원이다. 이 기금은 협의체 논의과정을 거쳐 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주민생활 만족도 11개월 연속 전국 1위

전남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11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월 조사 때보다 0.8%p 오른 69.2%의 만족도로 1위를 기록했다. 제주시가 63.9%, 경기도가 63.1%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62.9%로 1위에 오른데 이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

약계층과 농산어촌,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밤 빠르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국 최초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 확보,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확대,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 전남 시행 등 체계형 행복사책 추진도 한몫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3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2월 조사 때 보다 1.4%p 오른 69.7%를 기록, 1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수출형기계부품가공센터 착공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 정밀금속가공산업의 초석이 될 수출형 기계부품가공센터 건설에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 울촌산단에 건립되는 수출형 기계부품가공센터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생산지원동과 입수기업동 등 연면적 3888㎡ 규모로 15종의 기계부품 가공장비를 갖춘 예

정이다.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10억원, 민자 98억원 등 총 30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가공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비용절감과 가공기술 확보를 꾀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782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주민제안으로 제출된 "동림동 철도변 복측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9.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동림동 철도변 복측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용도지역(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계획(변경)
- 도로 : 소로1-375호선(B=7.5~10m→10m) 폭원 확장
- 공원 : 소공원① 축소 856㎡ → 765㎡(감 91㎡)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축소 887㎡ → 774.5㎡(감 112.5㎡)
라.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공동주택2 : 7,484㎡ → 7,230.5㎡(감 253.5㎡)
- 공동주택3 : 5,230㎡ → 5,215.5㎡(감 14.5㎡)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2 : 공공보행통로 위치 조정, 전면공지 신설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20. 4. 9. ~ 4. 23.(15일간)
-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132)
나. 북구청 도시재생과(☎062-410-672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는 계속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끝.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